* 히브리서 10:20 =>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라고 나옴.
* 구약성경 정경화는 A.D 90 년경에 Jamnia(얌니아) 회의때 결정됬음.
* 신약은 AD 397 년경에 정경화 됬음.
* 신약 정경:
* **제 1기 : 신약정경의 준비시대 (AD 30 -140)**
  + 눅1:1-4 => 예수님의 사건 -> 구전 -> 문서화 -> 누가복음
  + 구전된 복음을 문서화 시킨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나옴.
  + 준비시대의 기준이 누가복음 1:1-4 가 됨.
  + 문서화가 늦어지는 이유가 사도들과 목격자들이 아직 생존해 있었기 때문이다.
    -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이 많았고,
    - 또한 예수님이 곧 오실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.
  + 구전기(30 – 50)
  + 기록시대(50 – 100)
    - 기록되는 원인은 사도들이 죽기 시작하고,
    - 예수님이 재림이 오지않았기 때문.
    - 또한 복음이 멀리까지 퍼졌기 때문.
  + 집성기(100 – 140) – 책으로 모여지기 시작함.
* **제 2기 : 신약정경의 촉진시대 (AD 140 – 220)**
  + 하나의 신약성경으로 모아지는 시기.
  + 140 년도에 Marcion 마르시온 이란 사람이 나타남.
  + 최초의 신학자 라고 함.
  + 처음으로 모든 성경을 공부하고 어느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인지 평가를 함.
  + 사실은 이단자 임.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동일신 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.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잔혹한 안좋은 신으로 봤음. 즉 영지주의자 였음.
  +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자기가 만들어 냈음. 구약은 다 버리고, 누가복음, 바울서신 10개를 갖고 성경을 만듬. 이것을 Marcion 정경 이라고 함.
  + 그래서 교회가 이 이단자 Marcion 이 만든 Marcion 정경 을 대항해 정경화 를 할 필요를 느낌.
  + 또한 170년 경에 Montanus 라는 이단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께 종말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받은 종말계시를 성경에다가 덛붙힘.
  +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신약성경 정경화의 필요를 이야기 하기 시작하게 됨.
  + Irenaeus (170년)라는 프랑스 남부의 리옹의 교회 감독 이 자신이 정한 정경이 있음. 22권을 정경으로 인정했음.
* **제 3기 : 신약정경의 완성시대 (AD 200 – 397)**
  + **Muratori 무리토리 정경**
    - 19세기때 무라토리 라는 사람이 발견한 2세기 말에 쓰여진 정경.
    - 23권이 정경이 었음. 특이하게 베드로 계시록 이 정경에 들어가있음.
  + Origen 오리겐 정경
    - 4복음서
    - 유다서
    - 바울서신 14개 (히브리서 를 부친것)
    - 계시록
    - 등등 27권을 정경으로 봤음.
  + Eusebius(4세기) 유세비우스 정경.
    - 그때까지 통용되던 모든 문서들을 4가지로 나눴음.
      * Homologomena (논란이 전혀 없는 인정받은 성경책들)
        + 4복음서. 요한서신, 요한 일서, 히브리서, 계시록
      * Antilogomena
        + 의심의 서라는 뜻. 즉 여러 교회에서 계속 논쟁이 있다는 뜻.
        + 구약에서는 아가서 를 성경에 포함시키는데 있어서 랍비들끼리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음.
        + 신약에서는, 야고보서 유다서 배드로후서, 요한 2서, 3서 들이 논쟁이 많았음.
      * notha
        + 위경들을 말함.
        + 배드로 계시록 등등.
      * 이단문서
        + 배드로 복음. 도마 복음. 마띠아 복음. 안드래 행전. 요한 행전.
  + **397년에** Canthago 칸타고 회의에서 신약성경 27권을 공식적으로 정경화 시키고 이 이상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한다고 선언함.
  + 즉 27권(Homologomena 와Antilogomena 에 속한) 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통용되었고 397년에 공식적으로 선언한것임.

정경 – 외경 – 위경

외경 - Apocrypha 숨겨진 책이란 뜻

위경 - Pseudepigrapha위명문서 라는 뜻. 즉 가짜.

정경은 신약성경에 들어온 27권을 말함.

외경은 특별한 term 임.

* + Septuagint 라는 헬라어 로 70인번역 구약이 있음.
  + 20BC – AD 2세기에 Alexandria 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들이 히브리어를 못하고 헬라어 를 했음. 그래서 바로 Pharao 에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읽을수 있는 헬라어 구약성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함. 그래서 바로가 유대에 요청함 히브리어 로 되어있는 구약성경을 헬라어 로 번역해달라고. 그래서 70여명이 유대에서 와서 헬라로 번역함. 근데 70명이 각자 따로 나뉘어져서 번역했는데 번역이 100%일치했다고 함.
  + 외경들은 바로 이 헬라어 성경 Septuagint 에는 붙어있는데 히브리어 구약성경에는 없는것들이 바로 외경이다.
  + 즉 히브리어 정경에는 없던 신학문서를 헬라어 성경을 만들데 넣은것임.
  + 이것이 공교롭게도 라틴어로 구약성경을 번역할때도 같이 들어왔음. 그래서 카톨릭이 외경을 제 2성경이라고 하며 인정함.
  + 마틴루터가 신학개혁 할때 제 2성경을 다 뺌.
  + 신약은 외경이 없음. 신약은 정경 아니면 다 위경임.
  + 카톨릭 에선 정경은 제 1성경. 외경은 제2성경이라고 해서 외경도 다 인정함.
  + 그리고 카톨릭 에서는 우리가 Pseudepigrapha 라고 불르는것을 Apocrypha 라고 불름. 즉 우리가 위경이라고 불르는것을 외경이라고 불름.
  + 유대인들도 외경을 인정하지 않음.
  + 마틴루터가 외경은 읽으면 신앙에 도움은 되나 절대적인 근거는 될수 없다고 했음.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에서는 마틴루터의 의견을 따름.
  + 공동번역(카톨릭 과 기독교가 공동번역한 성경책) 을 만들때 서로 하나씩 양보했음. 사람이름 이나 지명은 카톨릭식을 따르고 대신 외경을 다 뺐음.
* 위경 은 안보는것이 더 나은 가짜 성경임.